

강남·서초지회 제품 설문조사 향후 기술세미나 자료로 활용

강남·서초지회(지회장 김영모)는 매출 향상을 위한 기술세미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원업소 30군데를 대상으로 판매제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강남·서초지회는 그동안 실시했던 기술세미나가 현장감이 떨어지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판매량이 많은 제품', '점포에서 권할만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향후 실시되는 기술세미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판매량이 많은 제품은 빵류로 조사됐으며 가장 권할만한 제품은 봉지빵류, 그 다음이 케이크류로 나타났으며 호박파운드와 쉬폰케이크, 아이스모나카, 바게트류도 선호품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7차 정기 총회 개최



창원지부(지부장 공삼포)는 지난 3월 10일 지부 사무실에서 관련 업계 인사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창원지부는 97년 사업 수지 결산 보고와 함께 98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부 운영에 공헌이 많은 회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대한제과협회 98년도 제33차 정기총회 개최 7대 주요사업 및 예산안 12억2천만원 확정

대한제과협회는 지난 2월 24일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일반 사업부문 총 2억 5,200여 만원과 출판사업부문 총 9억 6,600여 만원의 금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과협회는 특히 신제품 개발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7월 15일 호두제품경연대회를 개최하고, IMF시대를 맞아 각종 교육사업을 활발히 실시함으로써 회원업소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 나가자고 결의했다.

제과협회는 또 출판사업부문에서 <월간 베이커리>의 제작비 급등과 광고수익 감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월간 베이커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현재의 회원특가를 1,0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본회 조성민 부회장을 비롯해 오주복 지회장(부산시 지회), 김승남 감사등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주)고려당 김지정 사장과 서울양곡 박용하 사장에게 총회가 수여하는공로패가 전달됐다. 또 양지디자인포장 김철환 사장, 대명기업 장기재 사장, 대건팩케이지 맹충조 회장, 여흥사 민현기 사장, 영진기계 김영선 사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정기총회 화환 및 찬조금 답지

대한제과협회 제33차 정기총회에는 재단법인 과우학원 김지정 이사장이 화환을 보내오는 등 여러 업체에서 찬조금을 기탁했다. 다음은 찬조금 기탁업체(무순)

▲롯데삼강(대표 이종규) ▲대두식품(대표 조성룡) ▲중앙공업사(대표 유동식) ▲양지디자인포장(대표 김철환) ▲김스컨설팅(대표 김봉수) ▲대성제과기술학원(원장 이천식) ▲함지식품(대표 강희석) ▲대명기업(대표 장기재) ▲뿌리양곡(대표 김현대) ▲대한제과기술학원(원장 이흥렬, 화환)

군산, 새지부장에 이인호씨

군산 지부는 지난 3월 5일 군산시 궁전 부폐에서 업계 관계자와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군산지부는 이날 LEE베이커리의 이인호씨를 새 지부장에 선출하고 부지부장에 한승신, 최덕규씨, 총무와 재무 이사에 최영준, 한창희

씨를 각각 선임했다.

군산지부는 공식인 이사진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본격적인 지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인호 선임 지부장